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등학교' 설립

사회·복지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 사업을 계기로 노인의 목욕권 문제 이슈화

도시계획·주택 '모두를 위한 도시 자카르타'를 모토로 2023~26 지역 개발계획 수립

공간 활용 강도 및 주택 유형에 유연성을 더한 '공간상세 계획' 수정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로스앤젤레스	김민희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등학교’ 설립

인도 델리 NCT¹⁾ / 행재정·교육

델리 NCT 정부는 공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고등학교’를 설립하였음. 과목별 실시간 강의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멘토링 및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교육의 단점을 보완

정책적 배경

- 인도 사회의 높은 빈곤율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지역 내 많은 청소년이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대안 시스템이 필요
 - 인도의 사회·문화적 특징 등으로 인해 여성,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존재
-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대면 교육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한 가운데, 비대면 교육의 장점에 주목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제기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델리 가상학교(Delhi model virtual school)’를 설립하고, 9학년 대상으로 입학지원서를 받아 하반기 신학기부터 운영
 - 델리 NCT 정부 산하기관인 델리 중등교육위원회(Delhi Board of Secondary Education)의 주도하에 정식학교로 인가하여 운영하는 인도 최초의 완전 비대면 학교임
- 이 학교는 고등학생(9~12학년)을 대상으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입 시험인 JEE, NEET, CUET 등을 위한 학습과정도 체계적으로 제공
 - 학생들은 가상학교의 실시간 교육과정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음
 - 필요시 녹화된 강의 동영상과 학습 자료를 내려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술, 체육, 공예 등 예체능 교육 및 직업교육, 기술교육 과정도 별도로 제공
-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강의의 수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목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습자가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
 - 멀티시스템 강의실을 구축해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별도의 온라인 평가 시험도 치를 수 있도록 함
- 기존 비대면 교육의 한계인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지원안을 마련
 - 사회 정서적 지원 및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해 학생들의 소규모 공부 모임을 만들고, 필요시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서관, 심리상담 시스템 등도 이용 가능
- 입학생들은 해당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음
 - 이 플랫폼은 구글(Google)과 스쿨넷 인디아(School Net India)에서 개발

정책 평가

- 해당 학교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인도 최초의 학교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실시한 비대면 교육시스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 지역 내 소외되었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무료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진학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그림] 가상학교 홈페이지 모습

(출처: <https://www.dmvs.ac.in/>)



[사진] 가상학교 온라인 강의 모습

(출처: <https://www.dmvs.ac.in/>)

<https://www.dmv.ac.in/>

<https://www.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delhi-government-launches-virtual-schools-invites-admission-applications/articleshow/93897622.cms>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delhi-virtual-school-model-arvind-kejriwal-8122434/>

<https://www.indiatoday.in/fact-check/story/fact-check-first-indian-virtual-school-delhi-kejriwal-govt-gets-schooled-1994959-2022-08-31>

<https://www.news18.com/news/education-career/applications-open-for-delhis-virtual-school-to-offer-classes-from-9-12-coaching-for-neet-je-cuet-5858989.html>

<https://www.telegraphindia.com/india/countrys-first-virtual-school-launched-last-year-by-centre-not-by-delhi-government-national-institute-of-open-schooling/cid/1883741>

<https://www.thehindu.com/education/national-institute-of-open-schooling-refutes-arvind-kejriwal-claim-on-launching-indias-first-virtual-school/article65834299.ece?homepage=tru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 사업을 계기로 노인의 목욕권 문제 이슈화

중국 청두市 외 / 사회·복지

2019년부터 등장한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 사업과 직업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성업하면서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음.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 사업은 3인 1조로 이동식 욕조나 전용 목욕 의자, 각종 목욕도구 등을 가지고 노인의 집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들의 ‘목욕권’ 문제가 주목 받으면서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됨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가 신종 비즈니스로 보도

- 2022년 9월 말 일부 중국 언론이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¹⁾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助浴師, 중국명 ‘쭈위스’)²⁾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종 비즈니스 이자 직업으로 각광 받는다고 보도
 - 기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노인을 가족이나 가사도우미가 도와주어 몸을 씻겨주는 일은 과거부터 있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나 가사도우미는 몸이 약해진 노인을 전문적으로 목욕시켜 주는 기술이 없고, 적지 않은 노인들이 본인의 모습을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보이고 싶어하지 않음
 -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인구, 경제력이 없는 노인 증가 등의 문제로 요양원과 요양 병원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
 -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19년부터 일부 사업가가 서비스 회사를 차려 교육을 통해 전문 기사들을 양성한 뒤 사업을 시작
 -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중국당국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봉쇄가 자주 이루어짐에 따라, 외부 목욕탕에서 목욕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 사업을 호황으로 이끌게 함
 - 내륙지방인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의 경우, 전문업체가 3인 1조로 한 팀을 이루어 이동식 욕조²⁾ 혹은 전용 목욕 의자와 각종 목욕도구를 가지고 노인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

1)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에 대한 중국에서의 개념은 아주 기본적인 거동만 가능하거나 아예 거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목욕과 같이 힘을 써야 하는 일은 불가능한 노인을 가리킴

2) 중국 노년층은 주로 1980년대나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데, 이런 옛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욕조가 없음. 따라서 이동식 욕조나 전용 목욕 의자를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제공

- 목욕시켜 주기, 머리 감겨주기, 손톱과 발톱 깎아주기 등을 포함해 1회당 가격이 이동식 욕조에서는 200위안(약 4만 원), 이동식 의자에서는 100위안(약 2만 원)임. 서비스 제공시간은 준비와 정리를 포함해 대략 1시간 30분임
- 청두市보다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연해 지방의 대도시는 이보다 2~3배 비쌘



[사진]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가 노인의 집을 방문해 욕조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출처: 홍성신문)

- 이 보도 이후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에 대한 목욕 문제가 사회적인 논쟁으로 번짐
 - 일부 언론은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 사업과 직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을 지적. 기사 댓글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의 목욕 문제를 비즈니스로만 접근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남
 - 목욕을 시켜주는 일이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긴 하지만, 1회당 서비스 가격이 중국 노인의 평균적인 경제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문제를 제기

이를 계기로 조명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와 '기력 잃은 노인'의 실태

- 2020년 제7차 전국인구센서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18.7%(약 2억 6,000만 명)에 달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5%(약 1억 9,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연령층별 중국 인구 비중 중 55세부터 64세까지가 가장 많음. 이들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임
 - 마오쩌둥은 ‘인구는 곧 제1의 생산력이다(人口就是第一生產力)’라고 주창하며 인구 증가를 적극 장려했음
 -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지속됐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정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
 - 2020년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0.53%를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미 인구 정체기에 들어섰음
- 일부 인구학자들은 현재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추산
 - 2030년에는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 인구가 7,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이들을 수용하고 간병할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부족하고, 무엇보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에서 1년 내내 목욕을 전혀 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실상이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남
 - 따라서 일부 시민들은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들의 ‘목욕권’을 충족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런데 10월 6일 이후 관련 보도가 갑자기 사라짐
 - 하지만 내년 1~2월에 열리는 전국 각 省과 市의 지방정부 의회인 인민대표대회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745754271732428335>

http://cq.news.cn/2022-10/04/c_1129050406.htm

<https://baijiahao.baidu.com/s?id=1744628670809727156>

모 중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모두를 위한 도시 자카르타’를 모토로 2023~26 지역개발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도시계획·주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모두를 위한 도시 자카르타’를 모토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2023~26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

배경

-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의 임기가 2022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지방선거까지 주지사 권한대행이 이끌 **州政府의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됨**²⁾
 - 자카르타 **州政府**는 ‘2023~26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22년 25호)’을 제정해 ‘2023~26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 이 지역개발계획은 2023~2026년 동안 **州政府의 연간 사업계획**, 각 부서의 전략 계획 및 사업계획과 기타 개발계획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됨
- 또한, 2022년 1월 의회에서 통과되어 진행 중인 수도 이전 사업은 향후 자카르타 개발에 있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줌

주요 내용

- 기존 2005~2025 중기개발계획,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과정과 코로나19 및 수도 이전 사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확인
 - 빈부격차 및 빈곤율·실업률 악화, 학교시설 부족 및 학업 중도 포기율 증가, 쌀 등 주요 식량 생산성 감소, 지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 감소, 주택 공급 부족, 사회복지 문제 악화, 젠더 대응 계획 및 예산 감소, 지역 내 투자 및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 이들 과제는 다음의 6개 전략적 이슈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재난재해 회복탄력성, ② 역동적인 거버넌스 및 공공서비스 개혁, ③ 포용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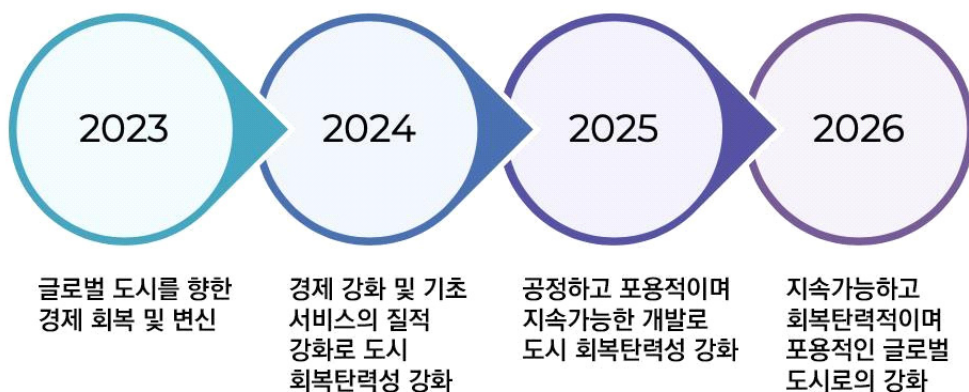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政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2) 당초 2022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와 2024년에 대선·총선과 함께 실시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2024년으로 미뤄짐. 자카르타를 포함하여 2022년에 임기가 끝나는 7개 **州**, 18개 **市**, 76개 **郡**의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을 중앙정부가 선정함. 시장 및 군수 권한대행의 경우 주지사의 추천을 거쳐 내무부가 최종 선정하고, 주지사 권한대행의 경우 내무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정함

회복탄력적인 경제, ④ 디지털 및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⑤ 건강하고 경쟁력 있으며 평등한 인간사회, ⑥ 공정한 개발

- 2023~26 자카르타 지역개발계획의 모토는 ‘모두를 위한 도시 자카르타’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가지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를 지향함
- 이 지역개발계획은 건조 환경, 경제, 인간, 거버넌스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됨
 - ①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② 경쟁력 있는 포용경제와 인간다운 삶과 부의 공정한 분배, ③ 공정한 인력 개발, ④ 질 좋은 공공서비스와 청렴한 정부관리의 4개 우선목표와 총 17개 세부목표를 가짐
 - 우선목표와 세부목표는 총 153개 전략으로 뒷받침됨

부문	목표	세부목표
건조 환경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질 좋은 도시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 조성
		•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을 통한 이동성 개선
		• 도시 생태계 회복 및 저탄소 개발 실현
		• 도시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강화
경제	경쟁력 있는 포용경제	• 경제·사업 부문 성장
		• 일자리 증가 및 노동자 적응성 향상
		• 빈부격차 감소 및 사회보장 완수
		•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인간	공정한 인력 개발	• 평생학습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 도시보건 개선으로 삶의 질 및 기대수명 향상
		• 젠더 대응을 통한 불평등 감소
		• 민주주의, 애국심, 공동체의 다양성 가치 강화
거버넌스	질 좋은 공공서비스와 청렴한 정부관리	• 지역사회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편의성 개선
		•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시티 생태계 개발 가속
		• 정부 성과관리 및 구조 개선
		• 건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지역재정
		• 공무원의 역량, 직업의식, 업무 분위기 강화



[그림] 2023~2026 연도별 개발정책 방향

2023~26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2022년 25호)

<https://bappeda.jakarta.go.id/dokumen-rencana-pembangunan-daerah-tahun-2023-2026/>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공간 활용 강도 및 주택 유형에 유연성을 더한 ‘공간상세계획’ 수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도시계획·주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근의 법제와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에 수립한 기존 ‘공간상세계획’을 수정하였음. 공간 활용 강도와 주택 유형에 유연성을 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배경 및 목적

-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의 임기가 2022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지방선거까지 주지사 권한대행이 이끌 州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됨²⁾
- 또한, 2020년 일자리창출법(job creation) 등의 제정에 따른 변화와 요구를 공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자카르타 州 정부는 ‘자카르타 공간상세계획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22년 31호)’을 제정해 2014년에 수립한 ‘공간상세계획’을 수정함
 - 공간상세계획은 자카르타의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공간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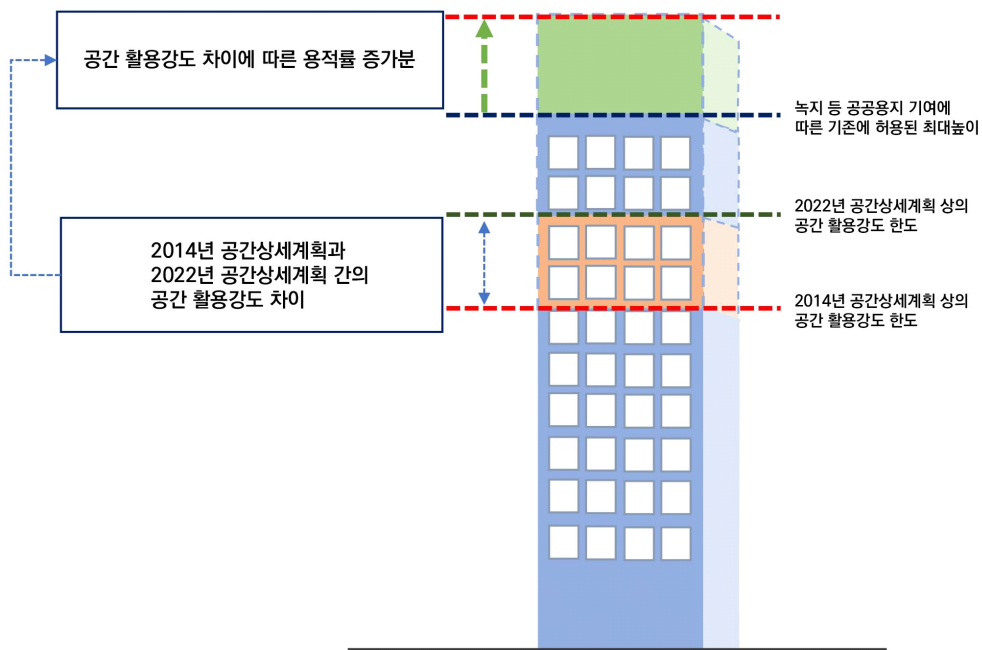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수정된 자카르타 공간상세계획은 다음과 같은 총 6개의 계획목표로 구성됨
 - ① 대중교통 및 디지털 지향형 도시개발, ② 살기 좋고 공정한 주택 및 독립적인 거주 환경, ③ 회복탄력적이고 주변지역과 통합된 도시공간 및 서비스, ④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 역할을 지원하는 공간 계획, 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안 및 도서 관리, ⑥ 정부 및 문화 중심지로서의 공간 계획
 - 서비스센터, 교통망, 에너지 그리드, 통신망, 수자원망, 배수망, 상수도망, 오수 및 유해폐기물 관리, 폐기물망, 기타 인프라망 등 총 10개 공간구조에 대한 계획 수립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 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폴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2) 당초 2022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와 2024년에 대선·총선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 지방선거가 2024년으로 미뤄짐. 자카르타 州를 포함해 2022년에 임기가 끝나는 7개 州, 18개 市, 76개 郡의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을 중앙정부가 선정함. 시장 및 군수 권한대행의 경우 주지사의 추천을 거쳐 내무부가 최종 선정하며, 주지사 권한대행의 경우 내무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정함

- 이번 공간상세계획은 공간 활용의 강도를 새롭게 다루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을 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공간 활용 강도(건폐율, 용적률, 지하 용적률, 녹지율)는 공공 인프라·시설의 이용과 서비스 반경을 고려한 해당 공간의 수용력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해 대중교통 중심지의 최적 개발을 겨냥함
 - 활용 강도 한도가 무제한으로 설정된 구역은 정부나 공공기업의 토지 이용 및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적화함
 - 고(高)강도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는 2014년에 수립된 공간상세계획보다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그림] 고강도 용도지역지구 활용 강도 변화

-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층까지만 건설이 가능하였으나, 최대 4층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택지 부족에 대응하고자 함
 - 또한, 면적 60㎡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다가구 공동주택, 대규모 대중교통시설과 연결된 고층 주거시설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정의·분류하여 유연성을 강화함
- 전통적인 주거양식과 시설로 구성된 도시형 마을(urban village)에 맞춰 용도지역 지구와 공간 활용 강도를 조정해 슬럼(slum)을 없애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공공녹지 최소 20% 이상 조성, 참여·협력형 주택 개발, 재난 발생 시 대피경로 설치, 대중교통과 연결된 보행로 조성, 소화전 및 소방차량 진입로 설치 등을 추진
- 그린빌딩,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도시형 마을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하위 계획을 추가 제정해 이번 공간상세계획을 뒷받침할 계획

자카르타 공간상세계획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2022년 31호)

<https://ialidkijakarta.or.id/2022/06/27/buku-saku-digitalrancangan-peraturan-gubernur-tentang-rdtr-2022/>

<https://www.beritajakarta.id/read/109016/pemprov-dki-sosialisasikan-pergub-rdtr-2022-hadirkan-keadilan-ruang-dan-akselerasikan-tranformasi-jakarta-sebagai-kota-global-berbasis-transit-dan-digital>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36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0월 24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